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2026년 제2회 부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기관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일시 및 장소	2026. 3. 25.(수) 14:00, 26층 회의실
참석자 명단	김승호 위원장 외 위원 14명
회의 진행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소개 ▪ 미술작품 설치계획 안건 검토 및 토의 ▪ 심의평가표 작성, 집계, 결과정리 및 발표, 심의결정서 작성
상 정 안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2건 2점 심의 ▪ 건축물 미술작품 위치변경계획 1건 1점 심의
발 언 내 용	<p><작품 1 Lightflow(라이트플로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과 배후 건물 사이 공간과 간격이 협소하고 한정된 잔디 면적에 내에 다수 작품의 작품이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답답해 보임. 건축주나 시공사의 요구 또는 작가의 열의로 추측되나, 밀도가 전반적으로 과하게 느껴짐 ▪ 제출된 심의도서 내용이 상세하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잘 만드신 점이 좋게 보임 ▪ 작품의 위치가 건물과 너무 인접하여 안정감이 부족하고 건물의 기둥에 의해 시각적 흐름이 끊어져 보임.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오픈된 장소에 설치되면 좋겠음 ▪ 작품과 환경과의 조화도 검토하지만 위치변경은 시공사 등과의 문제가 걸려있어 심의하기 어려움 ▪ 소방도로 때문에 위치가 더 애매해진 것 같은데 여기보다 더 나은 곳 또는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위치는 없음 ▪ 좀 더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후좌우 특징이 다른 작품이 아니라서 지금 위치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심의위원회 회의록

-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나, 뒷면 유리의 반사 효과가 반복되는 작품 이미지와 어우러져 작품의 볼륨감과 예술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위치임. 자칫 위협적일 수 있는 붉은 기둥 주변의 분위기를 예술작품이 완화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폴리카보네이트 3T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유지관리 문제도 괜찮지 않나 생각함
- 폴리카보네이트 재료 특성상 정전기로 인한 먼지흡착, 황변 등 오염에 취약함. 장기적인 미관 유지를 위해 대전 방지 처리가 필수적임
- 작가의 다른 작품들은 사람의 접근이 힘든 위치에 있었는데, 이번 작품은 보행로 역할을 하는 소방도로에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임을 고려하면, 높이 3M 이상 되는 작품의 경우 단면만 보더라도 불안해 보임. 높이가 가장 높은 작품은 4.5m인데 그에 대한 지지용 리브나 플레이트 자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작품 2 산-시간의 흐름>

- 재심 작품이라 부결사유로만 집중해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반영했다고 판단됨
- Ø15 스텐봉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땅에 지지하고 있어 기단부와의 접합방식이나 횡력에 매우 불안해 보임. 스텐봉끼리의 접합방식, 횡력에 대한 강화가 꼭 필요함
- 회의자료 6페이지의 부산진구에 설치된 작품과 똑같음. 자기표절로 보이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함
- 작가의 시그니처적 시리즈 작업이라고 하는데 형태는 같고 색채가 다르던가, 겉표면의 마티에르가 다르던가 하는 작업을 해외 작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작가들도 좀

심의위원회 회의록

많이 하는 편임

- 지난번 작품과 이번 작품이 눈에 띄게 다른 것은 표면의 투과성임. 이번 작품은 가시성을 높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시선이 관통해 보이면서 공간과 조금 더 조화롭게 해 보자는 의도로 보임. 스케일 또한 지난번 대비 훨씬 크므로 가시성을 매우 신경 쓴 것 같음
- 유사성이나 자기 복제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시리즈물을 통해 자기 시그니처로 자리매김하는 작가들이 많아서 구조 같은 것은 섬세하게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형태는 어느 정도 인정함
- 공공미술 분야에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자기복제라고 하기에는 작가 정신을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100% 동일한 복제품이 아니라면 작가 고유의 창작 정신을 존중해주는 게 좋겠음. *** 작가의 멀리 보는 만화 형태는 형태가 조금 틀릴 뿐 내용은 만화적인 분위기로 쳐다보는 유사한 작업이 많음
- 학위 논문의 경우 일정 인용 비율이 넘어가면 표절로 보는 근거가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자기 복제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음. 시리즈물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고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작가도 있어서 참 어려운 주제임
- 슬라이딩 된 구조가 하나씩 부착된 위치도 위쪽 횡부재에 용접하는 형태밖에 될 수가 없는데, 위에 올라타면 도미노처럼 쓰러지지 않을까 우려됨. 따라서 받치는 부재라든지 바닥으로 굽은 부재, 기존에 이런 형태들은 안쪽으로 두꺼운 부재로 고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작품은 강봉 형태로 3개가 따로따로 맞물려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불안함

심의위원회 회의록

- 지난 심의에서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지면에 닿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는 내용으로 부결되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기울기를 다르게 변형한 이유를 뒷받침할 구조계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풍압과 전도 위험 등에 대한 구조적 설득력이 떨어짐
- 피스를 박아서 탈부착을 통해 4개 구의 쓰레기 등 이물질 제거하는 방식은 추후 관리자가 작업하기에 불편해 보이므로 다른 방법을 고려하면 좋겠음
- 부결 사유를 명확하게 적기는 애매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구조적인 부분들이 지난 심의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본질적인 개선은 미흡해 보임
-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조형성도 있고 예쁘고 좋은데, 공공미술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어 보임. 아파트에 들어가면 조형물에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던데, 이 작품도 올라가기 좋게끔 경사가 45도 정도 잡혀있고, 빈틈 공간에 손이 끼여서 크게 다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움
- 조형물 전도 우려는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작품이 뚫려 있는 형상이라 바람을 정면으로 맞받는 게 아니고 관통하기 때문에 풍압의 영향이 크게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 이전 심의 작품과 변경된 점은 베이스가 원형판을 대고 용접해서 떨어지지 않는겠으나 대신에 지금 구조용 각관 자체가 약간 경사로 묶여있는 형태가 바람이 불면 전도될 것인지가 문제인데 심의도서를 보면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좌우측 골절들이 있음. 심의도서 22쪽을 보면 볼륨도 좀 달라서 좌우로 많은 바람이 불어도 옆에서 잡아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구조용 각파이프가 4개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재를 실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로는 구조검토 해오는 게 맞겠으나, 미술작품 대부분이 상부구조물 검토가 아닌 기초만 검토해 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상부검토서를 받아 확인하는 게 좋겠음

- 재심이라 조심스럽고 부결사유로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야 했을 것 같기는 함. 작가는 부결 사유를 토대로 나름의 변화를 줬는데 심의에서 10T로 하라는 수치를 주지 않고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모호한 평가인 것 같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보임
- 조형물 자체가 바람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강풍이 잦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조형물과 기초부와 접합부가 불안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기초 자체는 굉장히 튼튼함
- 기초부를 과할 정도로 그려놓았고, 상단도 5T 레이저 커팅에 봉 15mm짜리 4개 들어가는 정도면 아이들이 올라탈 수 있다고 해도 놀이기구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그렇게 문제될 것인가 하는 의견 드림

<작품 3 생태-위계>

- 일조량 부족으로 식재가 어려운 선큰가든에 작품을 놓는 것으로 위치 변경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래픽상 제안된 좌대의 규모가 작품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기반부 사이즈를 조형 쪽에 어울리게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 위치 변경으로 인해 작가 측에 추가 경비 발생이 예상됨. 이 건축물 현장에서 작가가 다수의 작품을 수행하며 타이트한 일정과 예산으로 남는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난 심의에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음. 이번 변경으로 작가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건축주 또는 기획사

심의위원회 회의록

의 지원이 있는지, 작가의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음

- 원형의 돌판 라운딩 작업이 작품에 도움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변경 전 공간이 더 자연스러움
- 변경 위치가 나무를 심기 위한 플랜터 위치로 아마 작가한테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임. 다만, 플랜터의 비율이나 규모를 작품에 어울리게끔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작품 설치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변경된 위치가 실제로 적합한지는 별개의 사안임. 장소 이동을 추진하더라도 작품의 조형성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보강이 필요함. 특히 현재 제안된 기단부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 작품과의 조화가 저해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 심의도서 8, 9페이지를 보면 지하 연결 통로와 산책로가 교차하는 단지의 중심부로 입주민의 가시성이 확보되는 지점으로 적합한 위치로 보임. 다만, 제출된 심의도서상에는 주변 건물과의 관계, 유동인구 동선, 야간 조명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이 요구됨

<심의 결과>

- 미술작품 설치계획 2건 2점 작품 중 2점 가결됨
- 조건부, 권고의견이 과반수 넘지 않으므로 기재의견은 정리하여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미술작품 위치변경계획 1건 1점 작품은 가결(적합)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 가결 2점
- 건축물 미술작품 위치변경계획 ▶ 가결(적합) 1점